

고개숙인 '기러기 아빠', 무너지는 부부관계

글_이윤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통 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황혼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다. 성의학 조사에서는 결혼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고, 첫결혼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중반의 발기부전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결혼실패와 뒤이은 사회적 좌절, 최근의 재기결심 등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상담을 통해 그 동안의 심리적 갈등, 사회복귀, 재혼 결심을 들은 후 느끼게 된 것은 최근의 재혼결심 후의 성기능장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결혼의 실패, 즉 이혼의 의미가 기혼남에서 다시 독신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완전히 사회적 재적응이라는 것을 절감한 그는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였고, 현재의 상태는 단순 경구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생활습관의 변화와 아울러 상당기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중증의 상태였다. 그의 연령을 고려하면 성기능 장애는 중증이었고, 또 하나의 고민은 재혼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압박감이었다.

결혼관계 형성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태생리의 하나를 지적하려면 교육문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학교의 붕괴, 사교육의 이상비대, 조기유학의 폐해 등 국가적인 백년대계가 방향을 잃고 표류중이다. 그 중에서 부부간의 관계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러기 아빠'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혼남의 면담일에 같이 상담을 했던 30대 후반의 기러기 아빠가 있었다.

사회적 성취도도 훌륭하고, 부부간의 문제도 전혀 없었지만 3년 전 자녀유학을 결정하고 기러기 아빠가 된 후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한 가족이 유학박람회서 유학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혼자만의 시간이 절제하기 힘들어지고 술과 다른 성상대자와의 관계가 잦아지면서 심리적인 갈등, 건강의 악화, 성기능의 급속한 감퇴를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복잡한 부부관계 형성이 문제되면서 젊은 부부의 이혼율의 급증, 기러기 아빠의 고민 등이 생물학적 원인의 성기능장애의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기쁜 감정을 더욱 기쁘게 하기도,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술로 극복해 보려는 남성들의 심적 갈등이 복합적 원인의 성기능장애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심각한 성기능장애가 사회병태와 맞물려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장애 극복도 의학적인 접근의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치유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를 허물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둘 사이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친밀감을 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병태가 점차 부부 사이의 틈을 벌려 놓고 있다. ㉮

